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변경, 과도한 경영간섭”

대한상의·경총 등 6개 경제단체
“기업가치 위한 대화 ‘수탁자 의무’
대표소송, 건전한 대화목적 넘어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이동근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외에 대표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금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탁위는 기금위의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engagement)”라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앞서 의견 수렴도 없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경연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내달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차관님이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양차관도 이날 논의 후 “경연계에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잘 경청했다”며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신규 확진자 6603명... 주간평균 7000명 뚨 ‘대응단계’

보건복지부, 오미크론에 확산세
기존 3T 전략서 ‘대응단계’ 되면
중증환자 관리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일만에 6000명을 넘어서며 확산 추세로 접어들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

자가 발생한 지 꼭 2년만인 20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13일)보다 2439명 늘어난 규모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3857명 이후 18일 4070명, 19일 5805명, 20일 6603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에 근접하며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대응 단계로의 전환 기준을 신규 확진자 7000명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도 당장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000명은 물리적, 기계적인 기준이 아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올랐다가 일요일부터 화요일 떨어질 수 있다”며 “일일 평균 7000명 수준으로 추세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전환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직 의료 대응 체계 여력이 있고, 대응 체계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88명으로 62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다. 위중증 환자 수는 22일째 지속 감소 추세다.

손 반장은 “진단검사나 의료체계에서 7000명을 넘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PCR검사는 하루에 70만건 정도 할 수 있고, 하루 평균

45만건이 이뤄져 25만건 여력이 남는다.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30%라 70% 정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7000명을 넘으면 ‘대응 단계’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445.6명으로, 직전주(1월7~13일)보다 1114명 늘어났다.

‘대응단계’가 되면 기존의 ‘3T 전략(검사-추적-치료)’에서 중증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고령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 항원검사를 확대한다. 또 급증한 확진자의 진단과 치료에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검출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되고, 설 연휴를 지나는 3주 동안 80~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생산자물가 6.4% ↑... 10년만에 최대치

한은,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3개월 상승 뒤 보합... 전년비 9% ↑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와 비교해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6.7% 상승 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3.22(2015년 100 기준)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오른 뒤 보합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0%나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

을 나타낸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농림수산물(5.2%) 및 수산물(1.8%) 등이 올라 전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도 석탄 및 석유제품(-6.7%), 화학제품(-0.6%) 등을 중심으로 0.6% 하락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가스, 증기 및 온수(5.2%) 증가에 따라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서비스도 음식점 및 숙박(1.0%), 운송(0.5%)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글로벌 시장에서 일년 현대차그룹... 올해는 **뽕뽕** 달린다

현대차, 지난해 미국서 혼다 제2기아, 美서 연 70만대 '최대 실적' 유럽선 BMW그룹 넘고 4위 기록

올 SUV·친환경차 등 신차 출격 中·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 박차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약재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제네시스 브랜드, 친환경차 등을 앞세워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물론 판매량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지난해 최고의 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자동차 중주국인 유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148만 911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6% 성장한 수치로, 현대차그룹의 역대 최대 판매실적이다. 특히 혼다를 제치고 미국 내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 북미법인의 합산 실적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78만 7702대다. 현대차 북미법인의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의 판매량은 73만 8081대다. 기아 북미법인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7% 늘어난 70만 1416대다. 기아가 미국에서 연 70만대를 넘어선 것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처음이다.

특히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에 GV80을 내놓으며 SUV



(왼쪽부터)현대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컨셉트카인 '프로페시'.

라인을 강화한 뒤 지난해 매달 판매 신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4만 9621대로, 전년 대비 202.9% 급증했다.

제네시스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 호실적을 이끈 주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RV)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RV 대수는 50만 9957대로 전체 판매의 64.7%다. 기아의 RV 판매도 44만 7932대로 전체 판매량 가운데 63.9%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의 유럽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독일 BMW그룹을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101만 856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51만 5886대로 2020년과 비교해 21.6% 늘었고, 기아는 50만 2677대를 팔아 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 규모는 1177만 4885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탄소 배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성비 높은 친환경차 모델을 대거 출시한 것이 주효했다.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 판매량(13만 5408대)은 전

년 대비 41% 늘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현지 전략모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고른 성장세가 판매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차 출시로 흥행 '청신호'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시장 공략에도 고삐를 죄다. 글로벌 시장 공략의 핵심은 친환경차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세대이자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 3월 공개한 컨셉트카 '프로페시'의 양산 버전이다. 아이오닉6는 쏘나타 크기의 중형 세단이지만 전용 전기차인 만큼 실내 공간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오닉6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가 장착되며 배터리 용량은 77.4kwh 정도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오닉5가 출시와 함께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만큼 아이오닉6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 중형 SUV GV70의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 이 모델은 GV70의 파생형 전기차로 1회 충전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부



기아 EV6 전측면.

/각사

스트 모드 시 최대출력 360킬로와트(kW), 최대토크 700N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기아는 올 하반기 전기차 EV6의 고성능 버전인 EV6 GT 모델을 선보인다. EV6 GT는 최고출력 430kW급 듀얼 모터가 적용됐으며 최고출력 584마력, 최대토크 740Nm의 성능을 갖췄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되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 2세대 신형 니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 1분기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과 인도 시장 공략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4월 중국 판매 정책 등을 재정비하고 올해는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아이오닉5 출시를 통해 판매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아직 중국시장에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5를 출시하지 않았다. 또 수소 전기차 넥쏘도 올해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차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넥쏘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열린 광저우 모터쇼에서 공개한 '중국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올해 중국시장에 출시해 친환

경브랜드로 이미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신흥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 공략도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올해 인도에 SUV 5종을 출시한다. 준중형 SUV 4세대 '투싼' 및 소형 SUV '베뉴'·'크레타'·'코나일렉트릭'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준중형 SUV '아이오닉5'도 올해 내로 선보인다.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쏘넷', 다목적차량(MPV) '카니발' 등 기존 라인업에 더해 '카렌스'를 공식 출시한다. 카렌스는 이미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사전예약 첫날인 지난 14일에만 7738대가 예약됐다. 이는 기아가 현지에서 달성한 최고 기록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점유율 확대가 가파르다”며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코로나發 ‘재택근무’ 경기 회복에 영향”

한은 재택근무 관련 BOK 이슈노트 GDP 감소 폭 완충효과 나타나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 여지 커

우리나라와 같이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고 정보통신(IT)기술 인프라가 발달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택근무 활용은 팬데믹 충격 이후 경제의 회복력에도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재택근무 활용은 업무내용, 업무활동, 디지털 인프라 등에 영향을 받는데 개인 특성별, 일자리 특성별,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특성별로는 저연령층, 고학력층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상용직, 대기업(300명 이상),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았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반면 숙박음식, 보건복지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임금상승률, 고용상태 변화)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해서다.

재택근무자의 임금상승률은 지난 2020~2021년중 11.8%, 8.2%인 반면, 비재택근무자의 임금상승률은 4.0%, 2.7%에 불과했다. 다만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86.0%)은 비재택근무자(74.9%) 보다 높았다.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은 경제

의 회복력(resilience)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재택근무 활용은 경제의 회복력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장회계 분해 결과, 2020년 1분기~2분기 중국내총생산(GDP) 감소는 근무지 생산 감소(-2.9%포인트, -5.5%포인트)에 주로 기인했다. 재택생산은 큰 폭의 완충작용(+4.3%포인트, +1.0%포인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총요소생산성은 다소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버티컬 플랫폼, 콘텐츠 소통 등 주효

>> 1년 '정통패션 위기 속'서 계속

정통패션, 플랫폼 다각화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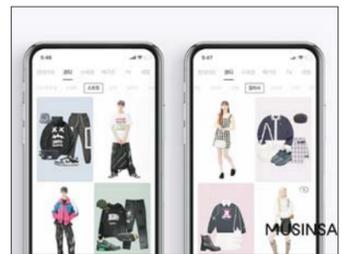
여기에 버티컬 플랫폼들은 전문성이 돋보이는 제품 큐레이션을 비롯해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서비스, 탄탄한 콘텐츠로 고객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체 기록을 경신해 나갔다.

반면, 수십년의 사업 경력에 자체 브랜드도 보유 중인 패션기업 형지, 세정 등은 오프라인 영업을 위주로 한 탓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형지는 지난 2020년 연결 매출 3052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정은 같은 해 연결감사보고서에서 매출 296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021억원(형지), 974억원(세정) 가량 손실적이다.

세정은 인디안과 올리비아 로렌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무신사 모바일 화면 이미지. /무신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하슬러, 예작 등을 보유하고 있다. 두 기업은 한때 '1조 클럽'에도 속해있었지만, 가두점 산업의 하향세로 해마다 매출이 감소해 왔다.

한편, 형지와 세정도 타 정통패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체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다각화와 전문 경영인 도입, 글로벌 판매 개시에 나서며 온라인 채널 고도화에도 대응한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뉴스1

“제2의 LG엔솔은 바로 나”... 10兆 규모 ‘IPO대어’ 줄줄이

(기업가치)

2022년 대형 공모주

LG에너지솔루션, IPO 신기록 투자자들 대형 공모주 관심 ↑

현대엔지니어링 25일 수요예측 현대오일뱅크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역대급 IPO(기업공개) 신기록 세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형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엔솔 투자자들의 시선은 ‘파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달성)’ 여부에 쏠리고 있다.

LG엔솔은 기존 청약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우며 균등 배정을 노린 투자자들은 1~2주(평균 1주 배정, 소수점 이하 추첨 배정으로 2주 배정 가능)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균등배정으로 최소 한 주는 확보하겠지만 미래에셋증권 등을 통해 청약한 투자자 10명 중 7명은 1주도 받지 못한다. 배정 물량이 적었던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1.2대 1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개 증권사가 이틀간 진행한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모두 442만4470개 계좌가 참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대 1로 집계됐다.

◆LG엔솔, 대부분 1~2주 받을듯...미래에셋 1억 넣어도 ‘1주’

대표 주관사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았던 KB증권이 6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하나금융투자 73.72대 1 ▲신영증권 66.08대 1 ▲하이투자증권 66.0대 1 ▲대신증권 65.3대 1 ▲신한금융투자 64.5대 1 순으로 높았다. 균등 배정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신증권으로 1.74주다. 한 명당 최소 한 주는 받을 수 있으며 74%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1명당 추가로 1주를 더 받을 수 있다.

뒤이어 하이투자증권이 1.67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영증권(1.58주), 신한금융투자(1.38주), 하나금융투자(1.12주), 미래에셋증권(0.27주) 순으로 집계됐다.

비례배정도 경쟁률이 높아 1억원을 넣더라도 많은 물량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경쟁률도 역시나 미래에셋이 422.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금융투자(147.4대 1), 신영(132.1대 1), 하이(132.1대 1), 대신(130.7대 1) 순이었다. 가장 낮은건 신한(129.1대 1)이다.

비례 경쟁률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증권에 1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1주를 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며 두번째로 경쟁률이 높은 하나금융투자는 4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청약 증거금으로 1억 500만원을 투자했다면,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균등 배정을 제외하고 최소 5주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LG엔솔, 파상 시 ‘주당 48만원 쟁긴다’

LG엔솔이 상장 당일 ‘파상’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78만원까지 오른다. 투자자는 상장 첫날 주당 48만원의 차익을 쟁길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70조2000억 원이다. 국내 시총 3위 기업에 올라서며 LG그룹의 전체 시총도 시가총액은 182조5200억 원으로 불어 현재 재계 4위에서 2위로 쏠쩍한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 보유 물량이 77%나 돼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LG엔솔이 이르면 2월 코스피2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주요 증시 지수에 포함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뿐만 아니라 혼다 등 완성차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업체들과의 조인트벤처(JV)를 확대하며 초격차전략을 지속 고려하면 시장점유율 확대와 차별적인 밸류에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 청약을 마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공모가는 30만원이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공모가의 90~200% 범위의 가격으로 정해진다.

◆IPO대어 줄줄이 대기 ‘현대엔지니어링 25일 수요예측’

LG엔솔의 역대급 흥행을 타고 공모금액 1조원을 넘어서는 ‘IPO 대어’들이 증시 입성을 대기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기업가치 10조원에 도전하는 기업만 4곳이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1월은 공모주 비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공모 열기가 한층 뜨거워져 기업들의 공모가가 줄줄이 희망가격 상단을 터쳐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예정 기업은 가치가 1조원 넘는 곳만 14곳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

리티 등이 증시 입성 예정이다.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에 나서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창립 20년 만에 IPO에 나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5~26일 기간 수요예측, 2월 3~4일 일반 청약을 거쳐 2월 15일 상장할 예정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1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공모 예정 금액은 9264억~1조2112억원이다. 이는 건설업종 내 시총 1~2위 수준이다. 예상대로 상장이 진행된다면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시총을 넘어 건설 대장주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13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 또한 상장후 시총이 8~10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의 3대 주자 SSG닷컴과 마켓컬리,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를 각각 10조원, 5조원, 1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시총 규모는 SSG닷컴이 약 10조원으로 3사 중 1위다. 이들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굵직한 증시 입성 상장사가 많아 IPO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스피 시총 2위 가능성... 주요 지수편입 등 주가상승 기대감 ↑

▶▶ 1면 ‘LG에너지솔루션 새역사’서 계속

수요예측 단계에서부터 공모가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은 희망 공모가 밴드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중국 CATL과 삼성SDI를 선정했다. 적정 시가총액 112조원에 37.4~46.4%의 비교적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7개 주관사 수수료 수익만 1000억 역대급 흥행 대박에 IPO 주관을 맡

은 국내 증권사들도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금액의 0.7%인 892억5000만원을 인수 대가로 받는다. 여기에 상장 관련 업무 성신도, 기여도 등을 감안해 공모금액의 0.3% (382억5000만원)를 추가로 차등 지급한다. 최대 127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또 증권사들은 건당 1500~2000원가량의 청약 수수료를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해 50억원 가량의 추가 수입도 확보한 상태다. 온라인 기준 KB증권은 건당 1500원, 미래에셋·대신·하이투자·신영·하나금융투자는 2000원을 청약 수수료로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무료다.

◆상장 당일 코스피 시총 2위 등극 가능성 ↑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7일 상장 당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코스피 시총 1위는 삼성전자(455조원), 2위는 SK하이닉스(90조원)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주에 속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의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증가는 평균적으로 78%”라며 “작년 평균 수준의 증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27일 예상 증가는 53만4000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12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2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주

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1조원 안팎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MSCI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2831억원) ▲코스피200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1960억원) ▲KODEX 2차전지·TIGER 2차전지테마 ETF(3764억원) 등이다.

허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 지수에는 3월 11일, MSCI 지수에는 2월 14일 장 마감 후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에프앤가이드의 2차전지 지수 방법론이 변경되며 ‘KODEX 2차전지산업 ETF’ 및 ‘TIGER 2차전지테마 ETF’는 2월 9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교체 매매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중동 순방 마친 文, ‘수소경제·미래산업 협력’ 등 결실

한-UAE 기업인들 만나 수소 협력 공동프로젝트, 금융 지원 등 협의 분야별 14건 수출 등 주요문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통해 ‘수소경제·미래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중립 전략 핵심 과제로 수소경제가 떠올랐고, 중요 물자 공급망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외교 성과에 집중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실무방문을 시작으로 6박 8일 간 정상 외교길에 올랐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및 관련 공급망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순방 첫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 시간) 양국 주요 정부 인사, 수소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인 등이 참여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UAE 기업들은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서 이집트로 이동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화하기로 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가 수소 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 UAE 순방 계기에 방상 분야 성과도 있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

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II’(M-SAM2·중거리 지대공미사일) UAE 수출이 확정된 것. 단일 무기 체계 계약으로 최대인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식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협력 성과를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

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인프라(에너지, 건설 플랜트), 수소에너지, 원전·방산, 지식재산, 정밀의료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소경제 관련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이자 아랍코 회장 겸 접견한 가운데 ‘사우디 국부펀드, 아랍코가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는 ▲제조 ▲인프라 ▲디지털 ▲보건 의료 ▲건설 협력 ▲에너지 등 분야별 14건의 수출·합작법인·파트너십·협력 등 주요문건도 체결했다.

사우디 순방 기간에는 한국 정부와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합의도 이뤄졌다.

중동 순방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에서 문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이후 양국은 ▲한-이집트 무역

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KICA 이집트 간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등 협정을 체결한다. 문 대통령 순방 계기에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이집트와 FTA 공동연구 개시도 합의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래차·IT·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협력, 신재생 수자원 등 친환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양국의 무역 투자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무역투자, 무역보험 등 협력 MOU(양해각서)와 전기차 개발 협력 LOI(양해서) 등 한-이집트 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도 이뤄진다.

정상 방문 계기에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2022~2026) 이집트 EDCF 차관 한도 10억불 신규 설정을 공약할 예정이다.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 사업 차관 계약도 체결해 이집트 지속가능발전 지원에서 미래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문화강국 열 것... 예산 2.5% 확대”

문화예술 6대 공약... 노동권 보장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장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등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를 배격해 문화예술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 예술인 및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도 넓힐 계획 등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장작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연말정산 더 돌려주겠다”

윤석열, ‘생활공약 3종’으로 표심 공략

반려동물·양육지원 등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체사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의당,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거의 공정성 훼손, 중단 돼야”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

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

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과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박정익 기자

지지부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협회장 “적극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법안 국회통과 위해 지속 건의”
정지원 손해보협회장
 “관련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후보도 언급... 기대감 ↑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협회장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시 예상 효과〉

소비자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했던 보험금 청구 가능
의료계	진료비·진단서 등 대량의 종이문서 발급 자동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보험사	실손 보험금 심사 효율화, 서류보관비용 절감 등
ESG 측면	연간 약 4억장의 종이 절감 → 연간 나무 4만그루 및 산림 30만평 보존 효과

/생보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희수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협회장이 신년 사업계획으로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거듭 강조하면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최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속원 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명(2020년 기준), 연간 청구건수 1억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 및 이로 인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

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원 손해보협회장도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청구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대선 후보까지 언급... ‘올해는 문턱 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8.6%를 차지했다.

다만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영수증, 세부 명세서 등의 요청 서류에서 출발해 향후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환자의 정보관리권을 지킬 방법이라는 것.

하지만 두 보험협회장에 이어 금융당국과 대선 후보 역시 공약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언급하며 기대감

이 모아는 모습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료기관과 개별적인 협상을 맺고 자체적으로 청구전산화를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금리 우대 ‘NH기업성장론’

NH농협은행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NH기업성장론’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NH기업성장론은 농협은행에서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개별산업에 부여한 산업관리등급, 하나로기업고객등급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매출액 및 누적수주계약 증가, 시설자금 중 자기자금비중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상환 및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환방법을 다양화했고 총 50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금리 변동주기를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에 따라 NH기업경영컨설팅 및 농식품 기업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소안 기자 think@

하나은행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세계적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2022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하나은행은 통산 21회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 무역금융 분야 시장 지배력 및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 고른 부문의 탁월한 역량을 국제적·지속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BAFT’ 온라인 포럼 플랫폼으로 진행됐으며 전세계 금융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및 설문결과를 토대로 수상자가 선정됐다.

글로벌 파이낸스지 관계자는 “전 세계 106개국 1152개 해외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내 최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무역금융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무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비대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BNK부산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에서는 유일하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스크래핑(모바일 자동 서류제출)을 통해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외에도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중 고신용자(NICE CB 920점 이상)는 부산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 1000만원, 1년간 고정금리 연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자(NICE CB 745~919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B국민은행, 亞太지역 거점 확보... 싱가포르 지점 개점

기업·투자금융 등 업무 수행
 24시간 대응 인프라 체계 구축

KB국민은행이 아시아 경제·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립했다.

개점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싱가포르와 한국을 동시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지난 19일 진행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최훈 대사를 비롯한 니콜라스 마르퀴에 IFC 싱가포르 대표, 현지 금융기관과 주요 관계사가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은행장 및 임직원이 동시에 참여해 싱가포르 진출을 축하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



(왼쪽부터)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이상현 CIB고객그룹 대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영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 하정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에서도 예비인가 취득 후 약 8개월만에 지점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싱가포르지점 본인가는 홀세일뱅크 라이선스(Wholesale Bank License)로 현지 통화 기반의 리테일 업무를 제외한 기업금융, 투자금융,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물론 증권업 일부까지 수행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금융시장의 자본시장 부문에 진출함으로써 런던과 뉴욕에 이어 24시간 대응 가능한 자본시장 인프라 체계를 구축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KB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개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방지

주공공,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자 모든 고객으로 확대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 방지통장

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도 압류방

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수령은행은 KB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수협·지역농·축협 등 13개 은행이다.

/나유리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청소년들을 지키는 선한영양력 지금 전하러 갑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같이도시락 지원사업



“
청소년들을
청소년답게

하나금융그룹
같이도시락

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타타대우, 고객요구 140개 반영... 13년만에 '인생트럭' 선보

맥센·구쎌 공식 출시

킨텍스서 '더 넥스트 제네레이션' 출력 570마력, 배출가스 규제 충족 긴급제동 등 운전자 보조시스템 탑재 스마트폰으로 시동, 도어 개폐까지

타타대우상용차가 13년만에 중대형트럭을 내놨다. 주행성능 개선은 물론 커넥티드 시스템까지 새로 도입하면서 '인생트럭' 철학을 확고히한다는 포부다.

타타대우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더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열고 맥센과 구쎌를 공식 출시했다.

맥센과 구쎌는 지난해 출시한 더 쎌에 이어 '쎌'을 타타대우 브랜드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대형 트럭은 2009년 출시한 프리마 이후 13년만이다. 특히 맥센의 개발 프로젝트 이름은 '맥시멈 에너지'라는 의미의 'MC'로, 강력한 파워와 내구성을 가진 대형 트럭에 중점을 뒀다. 구쎌는 'K-유틸리티'라는 의미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고객 요구 사항을 140여개로 정리해 제품 개발 최우선 과제로 반영했다.

타타대우는 강력한 주행성능을 강조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타타대우상용차 신차발표회 '더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했다. 최고출력 570마력에 최대토크 255kg·m, 그러면서도 유로6 스텝 E에 준하는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유럽산 엔진을 탑재했다. 이미 2019년부터 실차에 적용돼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받았으며, 국내에서도 1년여간 시험 주행을 끝마쳤다.

ZF 변속기는 엔진 성능을 극대화한다. 16단 수동과 12단 자동, 상용차 최초로 장착한 8단 자동변속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승용차 수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대거 탑재했다. ▲긴급제동 시스템(AEB) ▲



타타대우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타타대우상용차 신차발표회 '더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열고 새로운 대형트럭 '맥센(MAXEN)'과 중형트럭 '구쎌(KUXEN)'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ESC)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 ▲동공인식 졸음 방지 경고 시스템(DSM) 등으로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타타대우는 신차 라인업에 커넥티드카 서비스까지 적용했다. 이름은 '쎌링크'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동을 거는 것뿐 아니라 공조장치, 도어 개폐 등도 가능하다.

원격 관리 기능도 더했다. 차량 상태는 물론 소모품 현황과 교체 시기 등으로 원격 진단이 가능하다.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운행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어 업무 편의를 극대화했다.

편의기능도 첨단화했다. 풀HD 디지털 클러스터는 물론이고,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도 장착했다. 독일 ISRI사의 하이엔드급 시트를 적용해 안락한 운전을 도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인체공학 적 배치와 개선도 이뤄졌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트럭커를 위한 진화를 엿볼 수 있다. 인체공학적인 배치와 풀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키 시스템, 그리고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 편리한 운행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도 장착했다.

디자인은 독수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전면 그릴은 독수리 날개를 형상화한 '승리의 날개(WOW)'를 적용하고, 전면 램프에는 독수리 발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더했다. 측면에도 쎌를 상징하는 X를 독수리처럼 디자인한 데칼코 스포티하고 세련된 감성을 부여했다. 타타대우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슬로건 '인생트럭,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경험담을 담은 새로운 이야기 '황혼웨딩'을 단편 영화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다.

아울러 '메타버스'를 이용하며 혁신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가상 캐릭터인 '미즈 쎌'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하고 신차 프레젠테이션을 맡겼다. 앞으로 미즈쎌를 통해 타타대우의 혁신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맥센 25톤 카고 모델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1억9200만원대, 구쎌 4.5톤 극초장축플러스 카고 9100만원대다.

타타대우상용차의 김방신 사장은 "맥센과 구쎌는 실제 고객과 모든 요청사항을 수렴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쳐 개발했다"며 "어떤 물건을 어디로든 운반하며 사회에 폭넓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내벤처 'i-ESG' 출범

AI·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제공 "기업에 현실적 솔루션 제공할 것"

포스코인터내셔널이 ESG 경영 시스템 확대에 힘을 보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내벤처 'i-ESG' 출범을 통해 ESG 분야 사업에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i-ESG는 ESG 특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벤처다.

ESG 대응에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게 AI,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ESG 특화 플랫폼을 제공한다.

i-ESG의 ESG 플랫폼은 AI기반 리포트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ESG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국내외 인증·평가 기관 대응을 위한 웹 서비스가 가능하다.



i-ESG 김중웅 대표(왼쪽)와 포스코 산학협력실 박석진 실장이 포스코그룹 사내벤처 포벤처스 3기 벤처팀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종합상사의 해외 사업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ESG 연계 해외 마케팅 컨설팅,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임팩트 투자 소싱(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는 투자) 등 다양한 ESG 특화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김중웅 대표는 "ESG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며 "ESG경영 관련 정보와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고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완성차 업계, 설 맞이 車 무상점검 나서

현대차·기아, 26~28일 서비스 실시 르노삼성, 워셔액 무상보충 등 서비스 한국지엠, 엔진오일·필터 등 점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설 귀성길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앞서 차량의 주요 부품 및 기능을 점검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경우 전국 22개 하이테크센터(옛 서비스센터) 가운데 공사 중인 수원 하이테크센터를 제외

외한 21개 센터와 1331개 블루핸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같은기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점검은 전국 7개 직영점 및 동래사업소 신호파트에서 진행되며 방문 고객은 워셔액 무상보충 및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포함해 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도 같은기간 웨보레 전국 직영서비스센터 9개소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엔진오일과 필터,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에어컨 에어필터,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마모 브레이크 패드 등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통증완화 '메디페인' 선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의료기기

LG전자가 집에서 쉽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의료기기 시장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LG메디페인을 20일 공개했다. LG메디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2등급 인증을 받은 통증완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통증이 없는 생체 신호와 유사한 전기 신호를 뇌에 전달해 뇌에

서 통증 정보 대신 무통증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무통증 신호요법'을 적용했다. 기존 저주파 방식의 통증완화는 강한 강도로 근육을 자극해 통증완화효과를 주는 방식과는 다르다.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도 했다.

제품 구성은 본체와 전극패드 4개다. 전극패드를 붙이고 본체 중앙에 7형 LCD 화면으로 작동한다. /김재용 기자

태광그룹, 협력사와 상생 물품대금 240억 조기지급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약 24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조기지급한다.

20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협력사 약 370개사로, 예정된 지급일 28일보다 3일 빠른 25일에 일괄 지급된다. /양성운 기자

SK네트웍스, 에버온에 100억 규모 투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 업체

SK네트웍스가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더했다. SK네트웍스는 에버온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에버온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에버온은 국내 3대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 업체다. 공용주택과 카셰어링 솔루션을 활용한 자체 관제 시스템을 앞세워 전국에 1만여개 공용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충전기 개발과 생산과 관련한 핵심 역량도 확보했다.

에버온은 SK네트웍스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2만5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충전기 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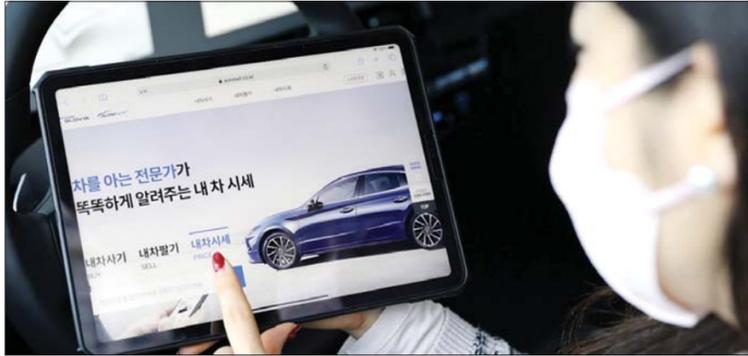
워크 기준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울러 본사 및 자회사의 모빌리티 사업인 'SK렌터카', '스피드메이트', '카티니(브랜드명: 타이어픽)' 등과의 시너지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SK렌터카의 경우 20여 만대에 이르는 전체 차량을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렌탈 하우스(SK렌터카EV파크) 구축 및 'EV 올인원' 등 전기차 충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에버온과의 협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네트웍스는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며 추후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 시대에 대비해 에버온에 투자를 결정했다. /김재용 기자

글로비스, 중고차 사업 본격화... 중개 플랫폼 '오토벨' 론칭

전 차종 실시간 시세 종합 분석
허위매물 적발 딜러 영구퇴출
“국내 최대 중고차 플랫폼 목표”



태블릿PC로 오토벨 앱에 접속해 내차사기, 내차 팔기, 내차시세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중국에 중고차와 자동차 해운 사업 관련 합자사를 세우며 사업 확대에 나선데 이어 이번엔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했다.

20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오토벨은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로를 공급하고 상생을 이뤄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구입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인터넷과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토벨에

접속해 내차 사기, 내차 팔기, 시세 조회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 딜러 중고차 매매자격 확인과 허위매물 등 우려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신뢰받는 딜러(판매자)망 구축과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중고차 딜러들이 오토벨에 가입할 때 사

업지등록증과 종사원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 자격도 확인한다.

중고차 딜러는 현대글로비스의 분당·시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차량을 오토벨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옥션 인증 차량’ 메뉴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인증된 경매회사를 통해 투명하게 유통된 차량을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운영 중인 각 중고차 경매센터와 데이터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의 실매물과 판매 여부를 검증한다. 참고로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경매에는 월 평균 1만여대의 차량이 출품되며 약 2200개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경매센터와 무관하게 딜러가 매입한 중고차를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위매물을 팔다 적발된 딜러의 회원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규정 등도 마련했다.

오토벨은 중고차 경매 데이터와 플랫폼상에서 거래되는 매물의 실제 가격을 종합 분석해 전 차종의 정확한 현재 시

세를 딜러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소비자는 구매한 차량을 집까지 배송 받고 3일간 시승 후 구매를 확정하는 온라인 홈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매물에 속아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에 매입하는 위험을 크게 덜 수 있다.

또 오토벨은 차를 팔기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문 평가사의 방문 매각, 비교견적을 통한 최고가 매각, 무평가 매각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토벨은 그간 중고차 경매사업 등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선보여 국내 최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카카오, 경영쇄신 박차... 신임대표 남궁훈 내정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CJ인터넷·위메이드 대표 등 역임
미래지향적인 가치 구현 리더 판단
김범수 의장 “ESG 경영 강화할 것”



남궁훈 카카오 단독대표 내정자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 공략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경영 쇄신에 나선다.

카카오는 20일 오전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열고 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남궁훈 센터장을 단독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여민수 대표는 최근 사회의 강도 높은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경험을 축적하고,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준비해온 남궁훈 센터장을 대표로 내정했다. 카카오는 다음 단계의 비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구현할 최적의 리더라는 판단이다.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한게임 창립 멤버로 NHN USA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 대표를 맡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 공동체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조직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선임돼 카카오 공동체의 글로벌 시장 공략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준비해왔다.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사회가 카카오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ESG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며, “메타

버스 등 미래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글로벌로 카카오의 무대를 확장하고 기술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의 센터장은 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대표로 변경된다. 김성수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공동체의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김범수 의장은 오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을 올려 “카카오가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해 보았다.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던 미래지향적 혁신과, 지금의 카카오 규모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미래 비전과 포용적 성장을 고민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페라리,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 국내 상륙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코리아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새로운 V6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카 '296 GTB'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KT,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TACO’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적용

최초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된 TACO(SKT Autonomous Cloud Orchestrator)는 SKT가 자체 개발한 컨테이너 솔루션으로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TACO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등 유연한 관리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SKT는 이번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이 산업 전반에 걸쳐 TACO 솔루션이 폭넓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지스트 ‘HPC-AI’ 구축 사업 수주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 종합 서비스 제공

트 캠퍼스내 슈퍼컴퓨팅센터에 구축된다.

소사업 형태로 협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운영하는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HPC-AI) 공용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산·학·연·관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난해 지스트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는 HPC-AI 공용인프라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HPC-AI 공용인프라는 올해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지스

HPC(고성능 컴퓨팅)란 고급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 슈퍼 컴퓨터나 컴퓨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AI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AI 연구를 위해 강력한 연산 기능의 하이퍼스케일 HPC-AI를 구축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수주는 CJ올리브네트웍스 및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다원컴퓨팅 등 분야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컨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는 23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지스트에 AI인프라 설계 및 구축, 컨설팅, 운영 등 하이퍼스케일의 종합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스트의 HPC-AI 공용인프라는 강력한 계산 용량의 6PFLOPS(페타플롭스, 1초당 1000조번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GPU와 10PByte(페타바이트) 저장 스토리지 등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현한다.

/채윤정 기자

LGU+ AI칩 탑재 ‘UHD4’ 셋톱박스 출시

LG유플러스는 공간과 콘텐츠에 맞춰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하는 ‘UHD4’ 셋톱박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형 셋톱박스인 ‘UHD4’는 전자인 UHD3 이후 3년 만에 출시된 신제품이다. 별도의 스피커가 탑재되지 않은 기본형 제품이지만, IPTV 최초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탑재해 구형 TV에서도 최신 TV 수준의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LG전자와 협업해 오디오 품질을 높였다. UHD4에 탑재된 AI 음향 기능을 활용해 고객은 TV를 시청하는 공간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리모컨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수집한 TV 사운드를 셋톱박스로 전송하면, 셋톱 내 고성능 AI 칩이 수백만건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고객의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자동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채윤정 기자

윤창호 “올해 26조 유동성 공급…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한국증권금융 신년 기자 간담회
금리인상기 안정적 자금운용처
자금 환류 위해 수신상품 다양화
대주재원 공급확대, 만기 연장 등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이 올해 26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공급해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투자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20일 윤창호 증권금융 사장은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의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증권금융은 올해 증권담보대출 및 할인어음(신용대출)을 통한 대(對)증권

사여신 18조6000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 대수 거래 7조7000억원 등 총 26조3000억원을 자본시장에 공급할 예정

이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2019년 18조9000억원 ▲2020년 21조5000억원 ▲2021년 26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윤창호 사장은 “금리 인상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투자업계에 안정적 자금 운용처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의 니즈에 맞도록 수신상품의 만기·금리 등을 다양화해서 자본시장 유입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당사 수탁서비스 강화를 통한 우수 사모펀드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의 중심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주서비스 개선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윤 사장은 “대주 재원 공급을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매도 시장에서의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했다”며 “지난해 오픈한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에는 현재 18개 증권사가 참여해 하루평균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파이낸싱·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는 주식·채권·파생시장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외연을 그린 파이낸싱, 가상자산 등

로 확대되고 있다”며 “녹색채권 인수지원·그린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 펀드투자 확대 등 그린파이낸싱 시장형성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 등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말까지 전체 운용 자산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증권금융은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지지선언에 참여하여 ESG 및 녹색금융 실천에 나섰으며, 여신·투자 집행 시 ESG 관련요소를 반영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작년 해외주식 보관·결제금액 ‘역대 최대’

테슬라·애플·엔비디아·MS 등
상위 종목 美 주식 44.4% 차지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05억9000만달러로, 결제금액은 연간 기준 490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의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주식은 779억1000만달러로 전년 말(470억8000만달러) 대비 65.5% 증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226억8000만달러로 전년 말(251억4000만달러) 대비 9.8%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나스닥 대형주와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에 해당하는 미국 주식의 보관금액(346억달러)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779억1000만달러)의 44.4%를 차지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지난해 연간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4907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233억9000만달러) 대비 51.7%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3984억7000만달러로 전년(1983억2000만달러) 대비 100.9% 증

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922억4000만달러로 전년(1250억7000만달러) 대비 26.2% 줄었다.

해외시장별 결제금액은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77.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위5개 시장(미국·유로시장·홍콩·중국·일본)이 전체 결제금액의 99.3%를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규모의 92.9%를 차지했고, 전년(1781억50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때 107.7% 증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애플,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셰어즈 순으로 나스닥 대형주와 레버리지 ETF 등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박미경 기자

KB證, 맞춤형 투자정보 ‘리봇웹’ 서비스

챗봇 플랫폼 SNS서 웹으로 확장
손쉬운 구성·키워드 검색 고도화

KB증권이 사용자 맞춤형 리서치 챗봇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구현하는 ‘KB리봇웹(WEB)’ 서비스를 선보인다.

‘KB리봇웹’ 서비스는 챗봇 서비스 플랫폼을 SNS에서 웹으로 확장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했다. 웹 기반 챗봇은 사용할 때마다 앱을 열어야 하는 모바일 기반 챗봇과 달리 PC 화면에 상시 띄워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증권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텔레그램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리서치 챗봇 ‘리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봇은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보고서, 실시간 주가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 주식

투자 및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투자정보 서비스 툴이다.

KB증권의 리봇과 리봇WEB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관심 있는 자산과 국가, 업종, 자료의 종류 등을 설정하면 리포트가 발간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연관된 리포트에 대한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손쉬운 메뉴 구성과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도 고도화했다. 리포트나 종목 현재가에 대한 단독 검색 기능과 더불어 통합검색 옵션을 제공해 종목명이나 키워드 입력을 통해 시세 또는 리포트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 임차인 모집

아파트 752가구, 근린생활 20실
전용 15~42㎡, 남영역 150m 위치



롯데건설 ‘용산 원효 루미니’.

롯데건설은 오는 2월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의 아파트와 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롯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도심형 주거브랜드인 ‘루미니’가 적용되는 단지다. 아파트 752가구와 20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주 임차 연령인 20·30 세대에 걸맞는 주거 서비스와 설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15㎡ A 14가구 ▲15㎡B 2가구 ▲33㎡ 188가구 ▲43㎡A 216가구 ▲43㎡B 45가구 등 5개 주택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150m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종로 및 시청 등의 도심 업무지역까지 15분내 도달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약 1km 거리에 용산역 및 서울역 소공원, 문화,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효창공원, 용산전쟁기념관

등의 녹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복층설계(전용면적 15A·15B), 웨어하우스 등 소형주택에 맞춘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 내 특화시설들이 대거 도입된다.

먼저 지상 3층에는 입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설계되며, 단지 내 최상층에 설계된 스카이라이프라운지를 통해 남산야경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헬스장, GX룸,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단지 내 1, 2층에는 20실의 근린생활 시설이 구성된다. 특히 ‘용산 원효 루미니’는 일반적인 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1·2인 가구의 감성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외관설계와 MD구성을 통해 고품격 테마상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국투자증권

ELW 313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워런트증권(ELW) 313종목(종목번호 57H001~57H313)을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74종목과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39종목이다.

ELW는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

는 권리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매매했던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래세도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수 하락 예상되더라도 풋 ELW 매수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식과 달리 정해진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기 시 최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파이썬 입문 과정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데이터 분석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파이썬 입문과 금융 모델링 실습'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이썬 입문과 금융 모델링 실습'은 오는 2월 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3월 8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금융 시장 분석, 투자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업 퀀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수강생은 금융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경 기자



편안하고 안전한
갱년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백수오**를 모르죠?

갱년기엔 유한백수오로알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유지**·**증진**
백수오



유한백수오 로얄



광고심의필: 211210694
판매원:(주)유한양행 제조원:(주)서흥

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특혜” vs “위배 없다” 갈등 격화

〈SKT·KT〉

〈LGU+〉

과기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토론회
SKT·KT “할당조건 부과해야”
LGU+ “소비자 편익증진 최우선”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동통신3사간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SK텔레콤과 KT측은 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특혜’라며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c폭을 추가로 배당받더라도 3사가 모두 동일한 대역폭인 100MHz폭이 돼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통3사의 주파수 할당 논란은 국회로까지 확산됐다.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진행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SKT와 KT는 “이번 할당은 특정



19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

/양정숙 의원실

사업자(LG유플러스)에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다며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편의를 최우선 고려해 추가할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자 양사는 주파수 경매는 진행하더라도 추가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이상현 정책혁신실장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정리해서 채워도 결국 잘못된 옷매무새는 남게 된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급방식이나 대가를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명의 기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 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맞은 사원의 요청에 의

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다면 과연 공정한 조치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CA라는 주파수집성기술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CA 지원 단말기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가능하고 이 단말기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SKT와 KT의 고객은 CA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 C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SKT와 KT는 3년 이후에나 이 주

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 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며 “당사도 할당참여를 검토했으나, 20MHz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되며, 투자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 할당 참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LGU+는 기 구축·운용 중인 100MHz 폭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 추가 비용 없이 SW 업그레이드만으로도 100MHz(80MHz+20MHz) 서비스가 즉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20MHz폭이 LGU+에게 할당될 경우 정책 발 시장경쟁 구도의 근본적 훼손이 우려된다. 수도권 지역은

LGU+ 장비(64TR) 성능이 당사 국산 장비(32TR) 보다 약 30% 이상 우수한데, 서울의 경우 당사가 주파수 폭, 장비 수량 모두 우위에 있음에도 LGU+ 장비의 우수한 성능으로 속도가 동등한 상황”이라며 “LGU+가 20MHz폭 확보 시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 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주파수 할당은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MHz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MHz폭으로 제공했는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구조혁신 앞장...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신년간담회
전국 구조혁신지원센터 10곳 오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들의 구조혁신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ESG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 디지털역량 강화, 좌초위기 산업군에 대한 인력 교육 등 ‘구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탄소중립수준진단 시스템’을 새로 오픈해 기업들이 탄소저감과 공정혁신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일 오전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19일 서울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진공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진공은 창업부터 혁신성장, 재도전 및 구조혁신 지원을

통해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물류 애로, 인력난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ESG경영 지원, 지역산업혁신, 디지털 정책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이 올해 새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지원사업’이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구조혁신지원사업으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노동전환 지원금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00억원이던 사업전환자금 예산을 올해엔 25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전국에 있는 기존 33개 사업전환지원센터 가운데 지역별 수요가 많은 10곳을 구조혁신지원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요발굴→전문가진단→컨설팅→구조혁신지원→재정·금융·세제 등 연계지원→성과분석·목표관리 등 사후관리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당장 2월 중 경기 수원에 1호 구조혁신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기업들의 ESG경영을 위해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정책을 연계하고, ESG 자가진단 등을 통해 저변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골자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의 ESG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첫번째가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ESG 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앞서 꾸렸고 이를 통해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만들어 매년 5만개의 기업 데이터를 축적, 기업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공정별로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해 탄소저감 및 공정혁신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수준진단’ (그린닥터)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조만간 오픈해 올해 600곳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그린닥터를 통해 기업별로 로드맵을 수립하면 컨설팅, 시설도입, 자금 등 정책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

탄소저감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넷 제로(Net-Zero)’ 자금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엔 1200억원까지 6배 늘렸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172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54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2970억 투입해 지역중소 키운다

기술개발 등 1139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297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지원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올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

역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해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각각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

간을 최대 2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33억원)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을 구축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양호·주의·심각)를 구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중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 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코로나 악재 뚫은 中企, 수출액 사상 최고

전년보다 16.2% 늘어

코로나19 장기화, 물류대란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엔 2018년(1052억 달러) 기록이 최고치였다.

아울러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6.2%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1년새 10% 이상 증가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계다가 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2020년 12월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엔 총 6회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에서 많은 기록이 나왔다.

1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기업도 2294개사로 역대 가장 많았다. 5000만 달러 달성(250개사), 1억 달러 달성기업(66개사)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2347개사로 전년의 9만4900개사보다 2.7% 줄었다.

/김승호 기자

“플랫폼 경제, 소상공인에 기회이자 위기… 상생 생태계 절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담회 “소상공인 포진 음식·숙박업 등에 가장먼저 ‘플랫폼 경제’ 도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불공정행위 감시 등 강화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중앙 여성)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조 위원장 오른쪽) 등이 정책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 업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과 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업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업 입점업체의 68.4%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

월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

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적용 제외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손해액 기준 배상한도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애로 2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1264억 투입…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

2025년 글로벌 백신 생산 5국 목표 산업·보건부, 기술력 확보방안 모색

정부가 올해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개발 및 임상, 사업화 등에 총 12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상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내 자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대량생산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874억 원을 편성해 백신 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산업부는 2025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백신용 핵심효소, 부형제, 정제 필터, 레진 등 원부자재 6개 품목 국산 기술 확보와 mRNA 백신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기술은 있으나 자체 생산 설비가 없는 기업들을 위해 안동과 화순에 있는 백신실증센터를 활용해 백신 임상 시료 위탁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백신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K-NIBRT)’를 송

도에 구축해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부터 5년간 안동 백신실증센터 생산시설을 활용해 1200명에게 현장 실습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참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백신기업과 원부자재·장비기업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제품 활용 확대에 나선다. 분기별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점검하고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미약품, GC녹십자, 에스티팜 등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각자의 백신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원부자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 친환경 녹색기업에 4176억 지원

환경부, 에코스타트업에 5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1억 투입

우수 환경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4100여 억원의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녹색기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1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우수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중견기업과 제조공장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1176억원을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에 최대 5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사업은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7년 이내 기업 150여곳에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수 환경기술 보유 기업의 초기 시

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에도 392억원이 배정됐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새 활용 소재를 수급·가공하는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친환경·저탄소 설비를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 60곳에 최대 10억원과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환경산업육성사업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금리로 제공하는 ‘미래환경육성융자’에도 총 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메타버스 플랫폼 육성에 556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정투자·제도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556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논의하며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5대 핵심기술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위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해 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 메타버스 R&D(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안전기준 상향

정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 안전기준으로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5.7%까지 줄었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 등

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우선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례체계 확립에 나선다. 유해물질 안전 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회를 참여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후 건물 저탄소 리모델링... 전기차 5분 충전망 구축”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도시기반시설 강화 투자 확대 ‘제로 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철저히 이행”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2026년까지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 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1000㎡ 이상 건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시는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작년 4.2%에서 2030년 2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금년 반포지역 재건축에 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 물연구원과 인제개발원 등 공공건물 냉·난방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일 오전 시청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고,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도 20%가 전기차로 교체된다.

기후재해에 대비해 노후 상·하수도 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시는 가뭄·홍수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 넓은 정수센터 4곳(180만/일)을 새로 단장한다. 불량 하수관로 정비물량도 연간 230km에서 2026년 312km로 늘린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상설조직인 ‘24시간 긴급상황센터’는 2024년까지 설치한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존 29만건에서 연 34만건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2026년까지 카페 내 1회용품 사용을 퇴출하고, 일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충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D·N·A 등 4개 분야 신설... 수준별 교육 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교육부 매치업사업 기본계획

신설 분야 3억2000만원 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힘쓸 것”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참여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는 ‘매치업’ 사업에 올해 4개 분야가 추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기자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2018년 시범 출발한 이후 2021년 학습자가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2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운영하며, 학습자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 이수결과에 따라 취업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는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5G(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BIG3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등) 4개 분야를 신규 선정, 분야당 교육과정·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부터 기초·심화의 수준별 과정을 도입한다. 기초과정은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와 연동해 제공하

고, 심화과정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PBL)교육, 기업 재직자(멘토)와 학습자(멘티) 간 연계 등을 위해 지속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 또는 대표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오는 3월31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정병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올해 매치업 사업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수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일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특성 분석

인하대학교는 20일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연구협력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작년 9월 환경부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수도권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 수행 기관으로 인하대를 선정했다.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으로 인haled는 환경부로부터 연간 4억6000만원, 인천광역시로부터 연간 2억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올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도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 검증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 출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통합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내놨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람이 결합된 결제앱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달 24~26일 발행하며, 시민들은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람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과 회원 관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결제 방법도 다양화된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는데 3월

부터는 터치결제, 웨이크&슬라이드결제(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만 엮어 결제)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포함한 생활정보 안내 기능이 탑재된다.

서울페이+ 출시 기념 이벤트도 마련됐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페이+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명을 추첨해 GS25 상품권(5000원권)을 증정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6개월 내 행정처분”

전문가 구성 ‘신속처분 TF’ 투입

서울시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은 처분까지 평균 반년 정도 걸리는 반면 중대재해사고는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20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한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분 TF’를 투입해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 (이하 처분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분심의회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꾸러지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후환경교육과 아동 참여사업, 저소득가정 주거 및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서울까지 2시간대... KTX진주시대 준비 박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총력
도심 통과 구간 6.1km 지하화

진주시가 'KTX 진주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 완공 이전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도교통부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77.9km, 총사업비 4조 8015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13일 관보에 고시했다.

2019년 1월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3년 만에 드디어 설계에 착수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개통되면 KTX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과 중남부권을 잇는 한반도 중심축 철도 교통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진주시청.

그동안 진주시는 노선 원안 유지, 신 진주역을 KTX역으로 활용 및 신 진주역 확장, 소음 등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도심 구간 지하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구간 복선화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정부는 노선을 기존 원안대로 확정했고, 기존 신 진주역을 남부내륙철도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를 통과하는 구간 총 30.1km 중 도심 통과 구간 6.1km은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다.

1966년 김삼선(김천~진주~삼천포) 철도 기공식 이후 50여 년 동안의 서부경남 지역민의 꿈이자 염원이었다.

2014년부터 조기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본 사업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민선 7기 시작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기원식 등을 통해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착실히 대응해 왔다.

남부내륙철도는 '복선화',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향후 관광객 수요와 물류 증가 대비를 위한 노선 복선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남부내륙철도가 준공되면 외국인 관광객 160만 명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 2조 원 증가 등 역세권의 상당한 발전이 예측되기에, 이에 대한 발 빠른 대비 또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또 진주를 중심으로 광역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진주 역세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 개설부터 서부경남과 동부전남 시군과의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24시간 AI 통화비서 서비스 영양군, 전국 최초 도입

영양군은 업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24시,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20일 도입한다.

군은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도 놓치지 않고 예약기능을 활용으로 민원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 민원실 바로콜(054-683-8282)을 이용하여 '예약'과 '메모'를 남겨 통화요청 및 사전방문 예약을 할 수 있어 담당자 부재로 여러 번 전화하거나 재방문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산업곤충 양봉과정 운영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업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산업곤충 양봉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양봉 기초이론과 전문기술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8개월 동안 27회 10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시민들은 입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직접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며, 접수 기간은 2월 7일까지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담양군, 지역 4개소서 찾아가는 코로나 진단검사

담양군이 에코농공단지 등 4개소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1주 1회 내·외국인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은 이날 5개 검사팀 15명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678명(외국인 275, 내국인 403)이 검진을 마쳤다. /담양(전남)=최영상 기자 dudtkd234@

고성군, 저소득층 시술비 지원

경남 고성군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는 전부 또는 부분틀니, 임플란트는 2개까지 전액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중증장애인,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감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접수하면 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韓식품 홍보 특목

육수·유자차, 인기식품 순위 올라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식품의 미국 주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지난 달 공개한 '월간 식품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기 한국식품 톱10'에 전남의 '한식육수'와 '꿀유자차', 두 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들은 전남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지난해 11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농심의 '짜파구리 컵라면', CJ제일

제당의 '비비고 죽 콤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한식육수'는 신안새우젓(주) 업체가 육수를 내는 천연조미료를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알약처럼 포장함으로써 간편성을 높였다. 멸치, 새우젓, 다시마 등 전남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특별한 제조방법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10위에 오른 고흥 아리푸드의 '꿀유자차'는 유자와 국내산 꿀을 사용한 제품이다. 유자에이드, 유자드레싱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티백에 개별 포장 아마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목공예실 모습.

나주천연염색재단 공예왕국 명성 되찾기 나서

지역공방 작가 소개전 등 개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1900년대 초 호남지역 유일의 공예품 제작소가 위치했던 공예왕국 나주의 명성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나주 공예는 산업화 흐름 속에 침체기를 겪으며 오늘날 나주반, 쪽염색, 싹갈나이 등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나주가 대표하는 색인 천연염색을 중심으로 나주 공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공예품제작소 설립 110년을 맞아 재단은 전라도 공예 부흥을 위한 나주로컬크래프트(지역공예품) 홍보 및 판매, 지역 공방작가 소개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 운영

친환경차 인프라 가동 '착착'

내달부터 인증서비스 개시
전국 최초 부품인증 국가기관

국도교통부와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이 지난 17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오는 2월부터 인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인증수요와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차 부품인증 국가기관이다

부품인증센터의 인증·평가 장비는 친환경차 배터리 평가장비 6종, 충돌 안전성 평가장비 7종,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10종, 화재재현장비 및 법적 부대장비 3종 등 26종이고 총사업비는 390억원으로 이중 국도교통부가 19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019

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세계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노사상생 일자리사업 대한민국의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공장으로 지금은 경형 SUV인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품인증센터 인접 부지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 고도화, 기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303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됐다.

광주시는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에 한해 배터리 시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양산시 "면접 정장 빌려드립니다"

'청년날개 FIT' 시행

양산시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날개 FIT'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면접 정장 대여업체가 없어 인근 김해, 부산 등 관외로 정장을 대여하려 가야 했던 지역 청년들의 불편함과 취업 준비에서 가장 큰 부담인 면접 정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어려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여 총 182명의

청년이 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양산시는 2022년 사업에 고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면접을 보는 청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면접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더 나아진 서비스로 청년들을 지원한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39세 이하 취업 면접 예정 중인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최대실적 달성한 SPC삼립... 2024년 매출 4兆 향해 달린다

영업익 1100억 등 경영목표 제시 HMR 확대... 푸드사업 박차 황중현 대표 “기술 차별화 주력”

SPC삼립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PC삼립은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SPC삼립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2조 947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658억원으로 28.6% 증가했다.

사업의 양대 축인 베이커리와 푸드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대로 온라인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133% 성장한 963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SPC삼립은 베이커리와 푸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B2B와 B2C를



SPC삼립은 2021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9470억원, 658억원을 기록했다. /SPC삼립

아우르는 ‘옴니 푸드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2024년 매출 4조, 영업이익 1100억원(연결기준)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HMR(가정간편식) 카테고리 확대하는 등 푸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 한다는

전략이다. 푸드테크 등의 고부가가치 신규 시장 창출도 가속화한다.

먼저, 푸드 사업 강화를 위해 ‘건강·편리함·고급화(Health·Convenient·Premium)’에 초점을 맞춘 HMR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2024년까지 관련 매출 2500억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HMR 제품인 샌드위치, 샐러드 등

은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릭수바인(육가공), 아임베이커(홈베이킹) 등의 개별 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시티멜리 브랜드로 냉동 HMR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한다.

온라인 사업도 강화한다. B2B 중심의 소재 유통 플랫폼 ‘상록웰가’를 D2C(Direct to customer·소비자 직접 판

매)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새벽 배송, 라이브커머스 사업 등을 적극 확대해 2024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스트에그’ 출시 등 푸드테크 사업과 ‘초바니’와 같은 친환경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삼립호빵, 삼립호떡, 하이면, 약과 등의 브랜드를 수출 전문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해외 사업도 강화한다.

SPC삼립 황중현 대표이사는 “변화하는 소비자와 유통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24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며 “R&D 투자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필터 자가관리”... 정수기 직접구매 소비자 ↑

전자렌드 코로나 영향 소비 방식 변화 지난해 4분기 정수기 판매량 급증 필터 할인·상품권 증정 등 행사 마련

전자렌드가 최근 소비자들의 정수기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정수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렌드는 수요에 따라 할인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자렌드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수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동기 대비 108% 판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정수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정수기를 렌털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필터를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형’ 제품이 다수 등장하면서



전자렌드는 이달 31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정수기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서 정수기를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의 정수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5% 판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는 초여름인 5월 말부터 폭염이 찾아오는 8월까지가 최대 성수기인 품목이지만 겨울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렌드는 이달 31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정수기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정수기 1년 치 추가 필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같은 기간 SK매직의 정수기를 구매 후 포도 후기를 작성한 모두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전자렌드 관계자는 “비대면 트렌드에 더해 홈룩, 홈카페 문화 확산도 정수기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며 “렌털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도 있으나 정수기처럼 이전보다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한 가전도 있는 등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가전 소비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농심 “새우깡에 빠진 라이언 만나보세요”

카카오프렌즈 캘래버 굿즈 출시 장바구니, 쿠션, 스티커팩 등 10종

농심이 카카오프렌즈와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굿즈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스낵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심의 대표 스낵인 새우깡, 꿀파배기와 카카오프렌즈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카카오프렌즈 ‘라이언’과 새우깡, ‘춘식이’와 꿀파배기가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양사는 두 캐릭터를 활용해 스낵을 먹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스낵그릇과 집게세트, 밀봉집게를 비롯해 마스크걸



농심이 카카오프렌즈와 컬래버레이션한 한정판 굿즈를 출시한다. /농심

이, 장바구니, 쿠션, 에어팟·버즈케이스, 스티커팩 등 10종의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카카오프렌즈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정 사은품으로 미니 사이즈 스낵팩도 함께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이베이코리아 ‘지마켓글로벌’ 사명 변경

기존 G마켓 로고 유지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인수된 이베이코리아가 사명을 ‘지마켓글로벌’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중 고객 충성도가 높고 한국 이커머스 업계를 선도해 온 G마켓의 대표 브랜드 영속성을 유지하며 신세계그룹의 디지털플랫폼 축으로서 미래 사업에서 더 큰 성장 기회를 찾는 의미로 ‘지마켓글로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원에 법인명 변경을 신청해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사이트 등 법인명칭 표기 변경 작업에 들어간다.

회사 로고는 기존 G마켓 로고를 그대로 사용한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한우·와인 선물세트 DIY 하세요”

‘오더메이드’ 선물세트 선봬

홈플러스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한 한우와 와인을 선물세트 구성해 주는 이른바 ‘오더메이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오더메이드 선물세트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한우와 와인을 선택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정육 선물세트다.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한우 부위와 중량, 와인을 선택하면 전용 박스에 담아 보자기로 포장해 선물세트로 만들어 준다.

한우는 항생제잔류물질검사와 한우

DNA 검사 등을 마친 ‘농협안심한우’ 등심, 안심, 채끝, 양지, 국거리, 불고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와인은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와인 6종(몬테스 알파 카베르네소비농/몬테스 알파 멜롯/1865 카베르네소비농/1865 가르미네르/고스트파인 캘리포니아진판델/고스트파인 카베르네소비농) 중에서 고르거나, 이와 별개로 개인이 원하는 와인을 선택한 후 오더메이드 코너에 전달하면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오더메이드 선물세트는 전국 37개 점포에서 각 5세트 한정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11번가 “LG가전, 내일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일부 지역 제외 주문 다음날 배송·설치

11번가가 26일까지 LG전자의 인기 가전제품을 평일 오후 4시까지 결제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배송·설치해주는 ‘LG전자 내일 설치’ 행사를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LG트롬 워시타워,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올레드 TV,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 80여종이다.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문 다음날 설치가 가능하다. 전

국 시·도에 위치한 LG전자 물류창고를 활용하며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설치를 맡는다.

11번가는 행사 기간 ‘LG전자 내일 설치’ 상품을 최대 14% 할인하고 행사 카드 최대 10만원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상품 구매 후 이달 말까지 포토리뷰를 작성한 고객을 추첨해 140만원대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오브제컬렉션(1명)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50명)’ 등 300만원 규모의 경품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 ‘오늘채식’ 3종 상품 출시

이마트는 20일 채식 간편 브랜드 ‘오늘채식’을 출시하고 전국 매장에서 관련 상품 3종을 판매한다.

‘오늘채식’은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과 가끔류까지는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 간헐적 채식을 하는 ‘플렉

시테리언’까지 3단계로 나눠 상품을 기획했다.

비건을 위해서는 구운 콩불고기와 두부면에 비건 소이 드레싱을 곁들인 ‘비건 두부면 샐러드’를, 플로 베지테리언 용으로는 닭가슴살에 참깨 드레싱과 곡물을 곁들인 ‘참깨 치킨 샐러드’를 내놨다. 플렉시테리언을 위해서는 콩불고기 샐러드 랩을 출시했다. /김서현 기자

북경한미약품, 신제품·주력제품 폭풍 성장

“올 매출 3200억 돌파 도전”

기침가래약 제품 성장 기대
올 매출 전년비 3배 증가 전망
현지 의료진에게 호평 받아

한미약품그룹 중국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신제품 및 주력 제품의 고른 성장을 토대로 올해 연매출 3200억원 돌파를 예고했다.

20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2021년 2800억원 매출을 달성한 북경한미약품은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이탄징’과 600억원대 ‘마미아이’ (어린이정장제), ‘리퐁’ (변비약) 등 19개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최근 출시한 기침제 형태 기침가래약 ‘이안핑’이 매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시 2년차를 맞는 이안핑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배인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안핑은 기침가래 치료 성분인 ‘암브록솔’을 중국 최초로 주사제에서 기화제로 바꾼 제품이다. 그동안 암브록솔 주사제는 중국 규제당국의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적응증으로 사용되는 오프라벨 처방이 많았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빠르게 간파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거친 뒤 기화제 형태로 제품을 최초 출시했다.

이안핑은 기침, 가래 증상을 신속하



증설된 북경한미약품 공장.

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향이 없어 어린이들에게도 약물 순응도가 높은데다, 호흡기에만 국부 작용하는 안전성 등 여러 장점이 겹쳐 중국 현지 의료진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안핑 기반의 다양한 바이러스 관련 추가 임상을 통해 급성 호흡기 증상과 과민 면역 반응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북경한미약품은 작년 착수한 3800례 이상의 다기관 4상 임상을 올해 완료하고, 800회 이상의 호흡기내과 등 임상 학술 활동과 1000여 개의 신규 병원 확보 등을 통해 처방 시장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북경한미약품의 이 같은 자신감은 1000억원대 블록버스터인 또 다른 기침가래약 ‘이탄징’의 성공 경험에서 비

롯됐다. 이탄징은 기침과 가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로 작년 4500만 병 이상 판매됐는데, 이는 중국 연간 신생아수 1200만명 대비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탄징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67.4% 성장한 10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이같이 급증하는 시럽제 수요에 발맞춰 작년 10월 584억원을 투자해 중국 내 최대 규모로 시럽제 생산라인 증설도 마쳤다.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약기업 중 북경한미약품처럼 자체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블록버스터로 육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올해도 북경한미약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호실적을 통해 제약 강국을 향한 글로벌 한미약품의 여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용제약 항암제 피부부작용 치료제 임상 2상

‘EGF 크림제’ IND 승인 받아

대용제약이 국내 생명공학 신약1호 ‘이지에프(EGF·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신규 적응증 확대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대용제약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WP708’ EGF 크림제의 임상 2상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를 타겟으로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i) 항암제 투여 환자에게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의 발진, 여드름양 발진 등의 피부 부작용을 위한 것이다.

EGFRi 항암제로 인한 피부 부작용

은 항암 효과가 좋은 환자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항암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EGF 크림제는 EGFR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염 등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EGF는 인체 내 존재하는 단백질로 세포의 증식, 분화에 관여하며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용제약은 이번 임상 2상을 계기로 EGF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의 피부 상처 궤양의 치료 이외의 적응증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생명공학 신약 1호인 이지에프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기가 마련됐다.

/이세경 기자

JW홀딩스, 중동서 국산화 의료기기 선배

‘아랍헬스 2022’ 독립부스 참가

JW홀딩스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2 UAE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아랍헬스)’에 참가해 JW그룹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아랍헬스는 올해 47회를 맞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다. 지난해에는 주최측 추산 62개국 176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3만4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JW홀딩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10여개 기업이 참여해 수술실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전시하는 한국의료기

기 통합전시관을 비롯해 행사 메인관에서 독립부스를 열고 JW 제품을 소개한다. JW홀딩스가 아랍헬스에서 독립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JW홀딩스는 진단시약·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계열사 JW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LED무영등, 수술대, 검진대, 등 필수 의료기기를 대거 선보인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의 상처 케어 밴드 ‘하이맘’ 제품군, HA필러 ‘이니티움’도 전시한다. 또 JW홀딩스가 지난해 스마트 광학 테크기업 아이엘사이언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두피-헤어케어 브랜드 ‘폴리닉’ 제품도 공개한다. /이세경 기자

기능성·스타일 다 잡은 아웃도어 ‘눈길’

오클리 내수성 높은 신제품 출시
K2 고어텍스 소재에 실용성 갖춰
레드페이스 엑스 워 앤 드라이 소재
보온성 높이고 포근한 착용감 유지

패션업계가 트렌디한 스타일을 강화한 것은 물론 제품 본연의 우수한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 기술과 기능성 소재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키, 보드 등 겨울 스포츠 대목을 맞아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더해 아웃도어 및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레드페이스 서플 본딩 카고 팬츠, /레드페이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는 실상 위, 도심 속에서도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스노우 컬렉션’을 출시했다. 오클리의 ‘FN Dry 10K 라미네이트’라는 독자 기술을 적용해 내수성이 뛰어나다. 대표 제품인 ‘TC 건 쉘 2L 자켓’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해 가벼우면서도 통기성이 우수하고, O-프로젝트 DW R(Durable Water Repellent·초발수 가공) 원단이 땀과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K2가 선보인 ‘시그니처 고스트 다운’은 방풍성과 투습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은 야상형 스타일의 다운이다.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털을 강제 채취하지 않은 책임 다운 기준(RDS)을 받은 구스 다운 충전제를 사용했으며, 후드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4cm의 라쿤피를 적용해 보온성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레드페이스는 혹한기 대비를 위해 탁월한 보온성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발휘하는 방한 팬츠를 선보였다.

서플 본딩 카고 팬츠는 특수한 단면 구조로 모세관 현상이 탁월해 빠른 속도로 땀, 수분을 흡수 및 건조시키는 이 엑스 워 앤 드라이 소재를 적용했다. 안감엔 기모 원단을 더해 움직임이 많은 하체의 보온성을 한층 높였으며, 장시간 입어도 포근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오늘의 날씨

1월 21일 (금)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7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CJ제일제당, ‘고메 1인용 사각피자’ 3종

피자 형태·메뉴 다양화 나서

CJ제일제당이 고메 피자의 메뉴와 형태를 다양화하며 MZ세대 등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간식과 가벼운 식사로 좋은 ‘고메 1인용 사각피자’ 3종(사진)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종이 트레이가 동봉된 직사각형 형태의 제품으로,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맞춰 온라인몰과 흡수점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메뉴는 ‘꿀고구마치즈 피자’, ‘케이준프라이즈 피자’, ‘허니베이컨체다 피자’ 3종이다. 전자레인지 2분30초, 에어프라이어 4분 내외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슐리킨즈 “생딸기 무제한으로 즐기세요”

이랜드이츠의 대표 뷔페 브랜드 애슐리킨즈가 20일부터 딸기 시즌 신메뉴를 출시하며, 무제한 생딸기 축제에 돌입한다.

매년 초에 열리는 애슐리킨즈의 생딸기 축제는 매일 새벽 매장으로 입고 되는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산지 직송 생딸기를 활용해 트렌디하고 다채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선보인다.

올해는 전국 애슐리킨즈 매장에서



‘스트로베리 인 윈터랜드’란 테마로 진행되며, 신메뉴 15종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우리동네 사랑방, 우리동네 와인바
 압구정의 하루이과 와 함께
행복한 1월을 맞이하세요!

1월 신메뉴 딸기피자 출시 & 행운의 복권 이벤트 진행



NAVER 압구정의 하루이과

압구정의 하루이과 (본점) / 이촌의 하루이과 / 오목교의 하루이과 / 죽전의 하루이과 / 마포의 하루이과
 동탄의 하루이과 (1월 오픈예정) / 판교의 하루이과 (1월 오픈예정)



아워홈, 구리시와 푸드테크밸리 조성 맞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구리시와 푸드테크산업 진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큐클리프

업사이클 제품 제작 등 친환경 활동 손 잡았다

하이트진로가 올해도 테라 브랜드 활동을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친환경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테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정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앞장서왔다.

하이트진로는 큐클리프와 함께 '청정라거-테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까스텔바작, 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 체결

까스텔바작은 지난 19일 까스텔바작 사옥에서 한국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임인년 최고 커피전문가 선발

임인년 한 해 동안 1만9000명의 스타벅스코리아 바리스타를 대표할 최고의 커피전문가 2인이 탄생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제네시스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 42대 車 후원

'롤렉스 시리즈' 첫 번째 대회 40대는 선수 의전·업무용 사용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은 DP 월드 투어 1 중 가장 권위 있는 5개 대회를 일컫는 '롤렉스 시리즈'의 첫 번째 대회다.

이번 대회는 아부다비 야스 링크스에서 20일(현지시간)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 대회 중 참가 선수들의 의전 및 대회 관계자 업무용으로 사용될 GV80.

제네시스는 이번 후원을 통해 올 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대회에 쓰일 공식 차량을 지원한다. 올해 대회에는 ▲GV80 32대 ▲G

80 스포츠 5대 ▲G80 2대 ▲GV70 2대 ▲G70 1대 등 총 42대 차량을 제공한다.

이중 ▲GV80 31대 ▲G80 스포츠 5대 ▲G80 1대 ▲GV70 2대 ▲G70 1대 등 차량 40대는 참가 선수들의 의전 및 대회 관계자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대회장 내 브랜드 부스에 GV80 1대를 전시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차량 설명 및 시승 예약 등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협력사 대금 768억 조기지급

명절 원활한 자금운용 위해 900여 곳에 순차적 지급키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768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8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900여 개 협

력사다. 오는 2월 2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768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앞당겨 1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협력회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3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한성차, 글로벌 취약지역 신생아에 따뜻한 선물

신생아살리기 레드로드 캠페인 임직원들이 뜬 모자 125개 전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신생아를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생아살리기 레드로드 캠페인'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모자를 떠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한성차 임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간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



한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신생아 모자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성자동차

다. 한성자동차 임직원 66명이 완성한 모자 약 125개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베트남의 소수민족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롱 대표는 "한성자동차가 도움이 필요한

국내의 이웃에게 나눔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성자동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혜자와 이웃을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인사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물류정책관 구한상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희 △국토부(교육과) 전형필 방윤석 김규철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류재룡 △항행시설과장 김동준 △국토부(교육과) 송시화 이상철
◆구리시 ◇4급 임기제 신규 임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5급 전보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보건행정과장 이진수 ◇5급 승진 △소통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영희
◆목포시 ◇4급 승진 △자치행정국장 김명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5급 전보 △감사실장 강광룡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지방행정과장 고영배 △비서

- 실장 김명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대성동장 최성철 △상동장 이길용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하당보건소장 김경희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5급 승진 △동명동장 박애란 △부흥동장 최형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유달동장 송창현 ◇5급 승진 교육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장미선
◆서민금융진흥원 ◇1급 △성과인사실장 장지현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금융교육부장 안수진 ◇2급 △경영지원부장 류지혜
◆OCI ◇부사장 승진 △김원현 △김청호 ◇전무 승진 △정승용 △한철 △성광현 △이수미 △양재용 ◇상무 승진 △박기훈 △김한승 △서성원 △장형규 △전구배 △최성길 △황세연 ◇상무보 승진 △정재태 △이은재

부음

- ▲염월씨 별세,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장) 씨 모친상 = 1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31-708-4444
▲이영식씨 별세, 정규목(MBC 스포츠취재부 차장)씨 모친상 = 1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성모장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32-340-7300
▲안기운(인천시 서구 복지문화국장)씨 별세 = 20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32-290-3501
▲권순이씨 별세, 이민정·지현·주현씨 모친상, 김남형(신한금융투자광주지점장)씨 장모상 = 20일, 광주 천지장장례식장 202호(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 173-1), 발인 22일. 062-527-1000

재단-베스티안재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설수진 베스티안재단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협

신협사회공헌·베스티안재단 저소득층 화상환자 지원·예방 손 잡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화상환자들을 지원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9일 베스티안재단과 저소득층 화상환자 지원 및 화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2020년에도 소방관과 화상환자를 지원하는 S.A.V.E. 캠페인을 진행하고 65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베스티안재단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소완 기자 think@

깨끗한나라 돌봄공백 해소 지원 3억 상당 기저귀 기부

깨끗한나라가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저귀 100만개를 기부했다.

20일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공백 등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3억원 상당의 기저귀 100만개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 저소득 아동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깨끗한나라 최원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공백 해소에 깨끗한나라가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회색 코뿔소’와 자영업자, 서민



이정혁
西村브리핑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높였다. 작년 8월과 11월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5개월 새 0.75%포인트가 인상됐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건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적어도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찍은 이후 11월 3.8%, 12월 3.7%를 기록했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한은만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달 7%나 올랐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으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게 살림과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전 연 3%대에서 현재 5%대까지 치솟았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지난 1년 동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전체 대출 이자 규모는 전체 12조 8000억원, 1명당 이자액은 64만 4000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은행 대출 창구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어 이자 부담은 한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72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 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3월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장도 종료된다.

올들어 우리나라에도 ‘회색 코뿔소 경고령’이 내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직면한 ‘회색 코뿔소’로는 가계부채, 물가상승, 미국 연준 양적긴축, 코로나19 확산 등이 꼽힌다.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가 몸집이 커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지만 정작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다.

여러 ‘회색 코뿔소’ 중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가계부채 코뿔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약 1845조원에 이른다. 이미 한국 경제 한 해 경제 규모를 뛰어 넘었고 증가 속도, 총량 부문에 있어서도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 코뿔소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란 ‘화살’을 쏘더니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또 다른 코뿔소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은행 돈으로 어렵게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얻은 서민들의 대출 부담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실성 있는 금융 정책이 필요할 때다.

/파이낸스&마켓부 대기자 ljh@metroseoul.co.kr

중대재해법 1호 어디? ‘공수처’ 데자뷰



기지수첩
원승일
(정책사회부)

건설사 중 일부는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지 몰라 우려해서다.

일부 기업 중에는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 사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아닌데”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근무 중에 노동자가 사망

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사업주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인데 취지는 노동자 산재 예방에 원천인 대표부터 책임을 지라는 데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산재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거다. 노동자 사망을 막으려면 대표가 작업 전에 기본 안전수칙부터 챙기라는 의미다. 그런데 경영진들의 관심은 죄다 ‘처벌’에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또, 안전·보건 의무에 따라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가 처벌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 발생 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래서는 법 시행 후에도 노동자 사망 산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2020년 4월 경기 이전 물류 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였다. 그런데 올해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6월 노동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가 붕괴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이다. 올해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관심도 ‘1호 사건’이 무엇이나였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척결이란 공수처 설립 취지보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는 비판에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won@

오늘의 운세 1월 21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성질대로 하다가 복을 내치지 않도록, 48년생 평소 예의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 준다. 60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하게, 72년생 투자와 적선을 구분하고 행동, 84년생 작은 것에 감사하다보면 위상이 저절로 커져간다.



37년생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유유부단함, 49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 73년생 기쁨이 해갈되듯이 일이 풀림, 85년생 여럿을 위해 중심을 세워 원망 듣지 않도록.



38년생 사람들이 좋아하면 신명들도 좋아한다, 5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 6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하도록, 74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 각보다 많다, 86년생 같은 또래 오피와의 거리가 순탄하여 서로이다.



39년생 애정사로 혼을 빼놓는 것 같은 하루이다, 51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들도 외면, 63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한다, 75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87년생 일이 어려우나 이웃사촌이 도와준다.



40년생 욕심으로 재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52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64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6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88년생 설계와 디자인 연구를 하도록.



41년생 늦게 찾아온 사랑을 빙자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53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65년생 업무 관련 약속을 소중히 해라, 77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워도 중심을 잡자, 89년생 부모님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42년생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공기도 사랑도 있기에, 54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 감사함, 66년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 78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90년생 남의 단점을 꼭 꼬집어 내면 예상외로 나도 신음.



43년생 사랑하되 산뜻하도록, 55년생 돈에 대해서 가족에게 상의를 청하라, 67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예술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91년생 이익 앞에서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해야.



44년생 사색을 좋아하니 고독함도 즐겁다, 5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밟고 올라선 내 밭, 68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8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상사에게 공손히, 92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어도 좋겠으나 생각하라.



45년생 심장에 충격을 주는 심한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 57년생 자녀의 특기를 잘 살펴봐라, 69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 81년생 행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만 줄이면 기쁨은 하루, 93년생 작은 것에 감사한날.



46년생 단심조만고(丹心照萬古)로 부끄러움이 적다, 58년생 주변 정리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 70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82년생 두드려라, 열릴 때가 온다, 94년생 원활치 못한 체세로 구설수가 있으니 동료와 말조심.



47년생 비위야 채워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 59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재내도록, 71년생 기다리던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저어라, 83년생 보이지 않는 손뼉 막는 가시로 고생, 95년생 나무에 햇볕이 드는 양상으로 진취적인 기상이.



김상회의四季 화, 일상의 수행

불교에서 ‘화’라는 개념은 성질을 참치 못해 폭발하는 화외에도 불평이나 불만을 포함하여 슬픔 비탄 후회 질투 시샘 등 그 스펙트럼이 넓다. ‘화’는 자기를 태우고 남도 태우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슬프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전통속설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증상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참으면 병이 되니 적당히 화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화의 감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 대화나 소통을 가지라는 의미이지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아가 화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나 생각의 전환을 갖는 지혜를 개발하라는 조언일 것이다. 불교적 마음치유 관점에서는 자신의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것이 요즘 많은 공감과 얻고 있는 명상이다. 명상을 좀 더 깊게 개발하면 위빠사나수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빠사나수행은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으로 사마타수행과 함께한 수행법이다.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관찰한다.”라는 뜻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승불교에 있어 주류 수행방법인 조사선에서 지관수행(止觀修行)이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조합한 단어이다. 석가모니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수행전통인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계승하여 오던 남방불교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근간에 많은 단체에서 명상치유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보게된다.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마음의 경향성을 닦아 나가는 좋은 방법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은 화를 다스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마리아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2		9	8		7		
4			1	7				3
	7	1				9	3	
		8		2		5		
	4	3				2	6	
1			8	3				9
	3		2	9		8		

		8		5		1		
			1		8			
2				6				9
	4		3		5		9	
8		1		4		3		6
	2		8		6		1	
9				8				4
			5		7			
		6		2		7		

정답

1	8	2	6	9	7	4	5	9
6	4	9	5	1	8	2	9	1
2	9	5	9	1	4	6	8	2
8	9	2	1	6	2	5	4	9
2	1	9	4	7	5	8	9	6
4	6	9	8	9	1	2	2	2
9	6	4	2	5	9	2	1	8
5	2	8	2	9	1	9	6	4
9	2	1	8	4	4	6	9	2

1	8	2	4	7	6	9	9	5
2	9	6	2	5	9	4	8	1
4	5	9	1	8	9	2	2	6
2	1	4	9	6	8	2	2	9
9	9	5	2	4	7	1	6	8
8	6	2	9	1	5	2	4	9
6	2	8	5	9	4	4	1	2
9	2	9	8	2	1	6	5	4
5	4	1	6	9	2	8	9	2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8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970호	

“개같이” 빛난 서른 살 남자의 죽음



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100권의 고전, 100개의 세계’

〈2〉프란츠 카프카의 ‘소송’

◆작품 속 인물과 마찬가지로 경계인이었던 카프카

원제는 독일어로 ‘Der Prozess’이고, 영어 제목은 ‘The Trial’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소송’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많이 쓰는 ‘심판’은 좀 부적절한 제목이다. ‘심판’은 일본식 번역 오용의 답습 사례로 많이 거론된다. 원어 자체가 ‘Prozess’인데다, 특정 시점을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365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원제가 의미를 훨씬 더 잘 드러낸다.

‘성’ ‘변신’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카프카적인 독특한 소설기법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불편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동화와 냉정한 리얼리즘의 혼합이라고 하며 열광한다. 카프카적 서술에는 비(非)사실과 사실이 같이 등장하는데, 비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서술 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소설은 미완성 소설로 알려졌지만, 읽어보면 이게 왜 미완성 소설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돼 있다. 카프카는 비사실을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사실에 있는 비사실적인 요소들을 발라내고 사실의 정수만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완성된 미완성을 보여준다.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대체로 작가를 함께 읽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히 서구에서는 부친과의 관계가 작가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카프카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라는 절대 권위 앞에서 미약하고 흔들리는 아들로서 카프카는 끊임없이 주변인을 전전하였고 분열과 괴리, 양분(兩分)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카프카가 낮에는 노동자재해보험국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작가의 일을 했고, 프라하에 사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근본적 분열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프카는 ‘아슈케나즈 유대인’ (아슈케나즈)으로 분류된다. ‘아슈케나즈’가 히브리어로 독일어를 의미하니,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문자 그대로 독일(계) 유대인이다.

스페인 지역을 빼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거주한 유대인 전체를 일컫기도 한다. 카프카가 ‘어머니’라고 말할 ‘보헤미아의 고색창연한 수도’ 프라하와 프라하를 안은 보헤미아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령이었다. 평생 거의 프라하에서 살았지만 따라서 카프카의 국적은 오스트

리아·헝가리 제국이 된다. 그를 둘러싼 언어와 민족이 복잡다단했고, 그는 독일어로 소설을 남긴 유대인이었다. 카프카가 나치가 득세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동생들이 나중에 나치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떠올리면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으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의 생애의 중요한 시기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었다. 반유대주의,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 같은 반명적 괴물이 유럽을 활보하였고, 누구나 그걸 의식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유대인이자 유대인이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카프카는 결국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게 되는 게르만주의의 언어로써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를 ‘게르만’적 사유



소송
프란츠 카프카/문학동네

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불가하고, 게르만주의의 대립항에 해당하는 시오니즘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아니었다.

세계사적 혼란과 분열의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지만 예민하게 시대를 지각하며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살다가 40살을 갓 넘겨 죽었다. 합스부르크왕가 지배의 체코에서 독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억압에 억눌리고 총괄적 분열 속에서 삶을 버텨낸 예민한 작가가 카프카의 자양은 모든 것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이었다는 숙명이 아니었을까.

◆실존주의 소설인 듯 아닌 듯

카프카는 자신의 소설에서 실존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었을까. 장 폴 사르트르를 비롯하여 후대 실존주의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문학적 형상화와 연관지어 카프카에 많이 열광했다. 사실 카프카의 소설에는 인간 실존 또는 인간 존재의 불안전성과 고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는 하다. 카프카의 소설을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분

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소설에 그런 성향이 강하게 배인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스 비극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고전 비극의 구조와 요제프 K가 자리한 ‘소송’의 구조는 닮았다. 이 소설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자 첫 문장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이고, 그렇게 요제프 K가 체포당한다. ‘체포당하는 것’과 ‘내 잘못 없음’이 결합한다. 무고한 희생이다. 얼핏 카프카의 실존주의와 그리스 고전 비극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엔 곧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리스 비극에서는 주인공인 영웅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그리스 비극과 ‘소송’의 차이이다. 희생은 동일하다. 그리스 비극에선 어떤 인물의 희생이냐가 중요한 반면 카프

락거리거나, 성을 기웃거리거나, 벌레가 돼서 집안에서 빈둥거릴지라도 결말은 주인공에게 미확정이다.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바를 모른다. 그는 모르는 가운데 선택을 한다. 보기에 따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적이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은 타고난 숭고함과 우월함 때문에 영웅이고, 다시 말해 이미 영웅이란 숙명이 주어졌 있지만,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주어짐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선택하고 결행함으로써 모종의 영웅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실존주의에 기반한 영웅의 발굴이다.

◆불멸의 카프카, 불멸의 요제프 K

영웅 요제프 K에게 무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은 그러나 전무하다. 이 소설이 비극의 결말을 피하려면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완성작으로 간주된 이 소설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 가슴에 칼이 꽂혀서 칼이 두 번 돌려져 죽으면서, “개같이”라는 말을 남기는 결말을 택한다. “개같이”라는 이 말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요제프 K는 자신의 죽음에 즈음하여 수치(羞恥)를 인식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이같은 인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절박한 판단이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행한 주체의 선택이자 행동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수치를 자각하는 이 사람은 그러한 인식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 비로소 상승한다. 이때 이것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불러도 무방하며, 평생 남루한 인생은 이 단말마의 짧디짧은 시간에 “개같이” 빛나게 된다. 이 사람은 카프카의 영웅이며, 또는 실존주의의 영웅이다. 그리하여 카프카 자신도 실존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비록 그 빛남은 “개같이” 짧았지만, 작품 속 주인공 요제프 K와 작가 카프카는 불멸한다.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카프카가 가진 비활동성, 유유부단함, 경계에서 있음, 그리고 그의 진공과 탈역사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탈시대적이고 진공에 부유하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카프카의 인물들이 그들에게 불편할밖에. 그래도 그 빛남은 그들도 어찌지 못했다.

/인문학자 겸 영화평론가(ESG연구소 소장)

이유없이 체포돼 죽음 맞이하는 과정 그려
저자는 실존을 그리는데 역점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행하는 주인공
실존주의 기반한 영웅의 발굴

카 소설에서는 인물의 어떤 상황에서의 희생이냐가 핵심이다. 무결한 영웅적 인물의 장엄한 불행과 불가해한 상황 속에 던져진 어떤 인물의 무력한 분투가 대비된다.

체포당한다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판’이 부적절한 제목일 텐데, 체포당한다는 것은 폭력에 포획당하지만, 향후 상황 전개는 불확정적이다. 그리스 비극 영웅들의 결말은 다르다. 결말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der Geworfene)로 규정한다. (수동태를 쓴) ‘던져진 존재’를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한 실존주의자들은 ‘소송’의 첫 문장을 읽고 아마 손뼉을 쳤을 수 있겠다. 본인이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요제프 K가 체포된 것을 실존주의 전형으로 봤을 법하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에게 운명은 신탁을 통해 미리 확정돼 있고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신탁을 알게 되지만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돼 법정을 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임신부 접종 논란에 당국 “확진시 조산-저체중아 분만 위험 ↑” /사진 유토이미지
▲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대구 여론조사업체·직원 고발

▲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용역사 직원 작업 중 사망
▲ 택배노조, 국토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 검증 요청



▲ 박영수 계좌서 화천대유에 5억...차 “김만배-이기성 간 거래” /사진 뉴시스
▲ ‘딸 대학원 입학 아빠찬스 혐의’ 연대 前부총장 1심 무죄

와인은 좋은데 취하긴 싫어... 무알콜 와인 뜬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독일 라이츠 포도밭 전경.

/leitz-wein.de

테이블 위의 맥주를 모두 콜라로 바꿔달라고 하자 웨이터가 의아하게 쳐다봤다. 대학생 때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의 일이니 벌써 20년은 훌쩍 지난 얘기다. 술먹고 취하면 도대체 어떻게 춤을 추라는 거지. 당연한 걸 왜 되물냐며 빨리 바꿔달라 했다. 무알콜 맥주나 무알콜 와인이 있었다면 춤은 춤대로, 분위기는 분위기로 즐길 수 있었을텐데.

‘취하지않을거면술을왜마셔’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던 시대는 지나갔다. 분위기와 맛, 건강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무알콜 와인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측되는 2022년을 살고 있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에서 알콜 도수 0.5% 미만의 무알콜 와인의 판매규모는 작년 상반기에만 43%나 급증했다. 음료시장 조사 업체들은 전세계에서 무알콜 또는 저알콜 와인의 소비가 오는 2024년까지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콜이 없다면 포도 주스와 같은 것 아닌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효모와 양조 과정이다. 발효 등의 제대로된 과정이 없다면 와인이 아니라 포도 주스다. 진짜 무알콜 와인은 효모로 발효된 포도즙으로 양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알콜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레드와인 한잔은 보통 12~15%의 알콜과 약 125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양이라면 무알콜 레드와인은 알콜은 0.5% 이하, 칼로리는 약 30~35로 푹 떨어진다.

와인 업계는 건강에 더 좋은 와인, 소위 ‘BFY(better for you)’ 트렌드에 이미 올라탔다. 이전까지 무알콜 와인이 생일 축하 케익 옆이나 장식할 싸구려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포도와 정제된 알콜 제거 방법을 앞세워 유명 와인 메이커들이 뛰어들었다.

무알콜 와인의 선두주자는 독일이다.

독일 와이너리 라이츠(Leitz)의 아인스 츠바이 제로(EINS-ZWEI-ZERO)는 무알콜 와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브랜드다. 라이츠 자체도 라인가우 지역에서 훌륭한 생산자로 일컬어지는 곳이지만 무알콜 와인으로 최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무알콜 와인을 로제 스파클링 와인부터 리슬링, 카버네 소비뇽까지 다양하게 생산한다.

라이츠의 아인스 츠바이 제로는 대부분이 알콜 도수가 0%며, 레드에는 0.5%로 오렌지 주스와 거의 비슷하다.

라이츠는 “무알콜 와인은 결코 기존 알콜 와인과 똑같은 맛이나 깊이, 구조감 등을 가질 순 없지만 매우 유사하고, 알콜없이 와인을 즐

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도 무알콜 혹은 저알콜 와인에 있어 각광받는 곳이다.

특히 뉴질랜드 와인의 경우 기존에도 서늘한 기후에서 천천히 익는 포도로 가렵고 신선함이 매력이었다. 당과 알콜을 낮추기 쉬운 여건이란 얘기다. 알콜로 줄어든 구조감과 무게를 풍부한 향으로 채울 수 있었다. 연구개발에만 17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쏟아붓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뉴질랜드 10대 와인 생산자 중 하나인 기센 그룹은 지난해 처음으로 무알콜 소비용 블랑을 출시했고, 알콜 도수를 낮춘 피노그리와 리슬링도 선보였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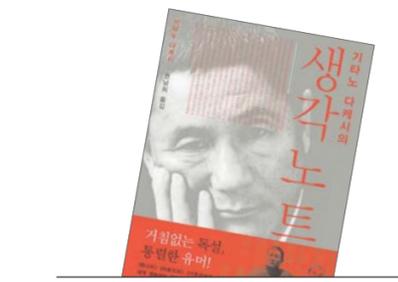
“뇌를 발달 시키는게 바로 귀찮은 일”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즐거운 일과 중 하나에 속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르곤 했다. 하루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탄 중학생이 집에 가는 내내 핸드폰을 붙잡고 친구와 통화하는 걸 의도치 않게 듣게 됐는데 대화 내용이 압권이었다.

그는 “헐”, “대박”, “진짜”라는 3개의 단어만으로 한 시간 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처구니없을 땐 “허얼...”, 놀랐을 땐 “헐!”, 극도로 흥미로울 땐 “대~~~박”, 빨리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땐 “대박, 대박, 대박”,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땐 “진짜?”, 짜증이 날 땐 “아, 진짜”라고 말했다.

단어를 짧게 내뱉을 때와 말꼬리를 길게 늘어 소리를 낼 때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 단 세 마디 말로 장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어디에나 찰떡으로 어울리는 감탄사(내지는 추임새)가 어린 친구들의 표현력을 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라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 습관 중 “~한 것 같아요”라는 표현에 탄축을 건다. 다케시는 요즘 사람들이 도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이 같은 어투를 갖게 됐다고 분석한다. 책에 따르면 옛날에는 도구가 손발의 연장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어 인간이 자신이 사용하는 연장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도구들은 뇌의 작용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멍청하게 있어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

기타노 다케시 지음/권남희 옮김/북스코프

도 얼마든 사용이 가능해 연장에 조종당하는 인간이 늘었다는 게 다케시의 주장이다.

그는 “사고 회로가 ‘대중대중’이 돼 표현 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에게 말이 제대로 전해질지 어떨지 자신이 없어 ‘단 것 같아요’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은한 단맛이 있고, 사카린처럼 강렬한 단맛이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대중 때우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책은 “~한 것 같은”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상은 단순한 말의 유행이 아닌 ‘사고 능력의 퇴화’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다케시는 “도구 덕분에 편리해지면 그만큼 인간의 어떤 능력이 퇴화한다. 요컨대 이것은 문명 자체가 안고 있는 병리”라며 “귀찮은 것을 피하기만 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뇌를 발달시키는 게 바로 귀찮은 일”이라고 말한다.

22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ik1@

급진의 20대

김내훈 지음/서해문집

요즘의 20대는 약자와 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이나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받아들인다. 저자는 “20대가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혐오와 분노는 취업과 연애에서부터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조건까지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든 체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이라고 진단한다. 젊은이들의 떨림과 몸부림이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책은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라는 이념의 박스권에 갇힌 한국 사회의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가장 위태로운 세대가 더 많은 우리를 위해 벌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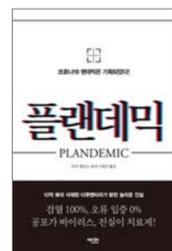
헤게모니 전쟁.

256쪽. 1만6000원.

플랜데믹

미키 윌리스 지음/이원기 옮김/에디터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자 미키 윌리스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책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 마이크 로소프트 창업자에서 자선 사업가로 탈바꿈한 빌 게이츠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범세계적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속내를 파헤친다. 저자는 두 명의 핵심 취재원에 주목한다. 바이러스 학자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권력과 이득을 노리는 책략이 공중 보건을 감독하는 기관과 개인을 어떻게 부패시키는 지 솔직히 이야기한다. 재무 분석가인 데이비드 마틴 박사는 철저한 특허 조사를 통해 얻은 충격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이해 충돌 의혹을 짚어낸다.



긴대 패싱

윤석만, 천하람 지음/가디언

책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긴대’(끼인 세대)로 정의한다. 오늘의 3040세대는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습득하고 강력한 팬덤 사상을 만들어낸 이들로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탄생’을 경험했다. 그러나 고속 성장의 수혜는 586에 빼앗기고 사회 트렌드는 90년생에게 밀려 아웃사이더가 돼 버렸다. 책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을 메울 열쇠로 긴대를 제시한다.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한 586세대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그들의 정의로운 방식을 배우며 성장했으나, 시대가 급변하며 ‘눈 떠보니 선진국’의 삶을 사는 공정한 90년생 사이에서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에서 있다는 것이다.



26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미국 빅테크 반독점법안, 중국 틱톡·위챗도 ‘정조준’ /사진 뉴시스
- ▲ 사내 성폭력 덮은 블리자드 CEO, 회사 팔아 4600억원 챙겨

- ▲ 中 동북3성 2년째 韓유학생들 입국 불허
- ▲ ‘개도국 원조’ 찬성응답 4년새 11%p ↓...코로나·경기위축 원인



- ▲ 에미레이트항공 수장 “5G 혼란, 업계 몸담으며 본 최악의 실책”
- ▲ 日전문가, 오미크론 대응에 “인파 억제보다 인원 제한이 중요” /사진 뉴시스



[산업] 타타대우 13년만에 인생트럭 선보 08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담긴 곡물음료... 섞고, 얼리고 색다르게 즐겨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웅진식품 '아침햇살'

90년대 외국 브랜드가 주를 이뤘던 국내 음료 시장에서 우리 원료와 기술로 탄생시킨 곡물 음료다. 웅진식품의 '아침햇살'이다. 아침햇살은 웅진식품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원료로, 쌀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구현하는데 주력하며 단순 음료를 넘어 우리의 정서를 담은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아침햇살은 1999년 출시 첫 해에는 400억원, 이듬해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20여 개의 업체에서 유사 쌀음료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웅진식품만의 기술 노하우를 이기지 못했다. 국내 최초로 쌀 음료 카테고리를 일구어 냈고 동시에 명실 상부한 시장 No. 1으로 등극하며 20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쌀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웅진식품은 볶은 현미와 백미를 효소 분해시킨 뒤 맑은 액을 얻는 고유의 쌀음료 제조방법을 개발해 제조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아침햇살은 100% 국산 곡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쌀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현재까지 아침햇살을 만드는 데 소비된 쌀은 무려 4만8500톤에 달한다. 이는 80kg의 쌀 가마니로 계산했을 때 약 60만 가마니에 해당하는 양이며, 밥 한 공기(90g)를 기준 약 5억4000만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아침햇살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180mL 병 기준으로 약 25억병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아침햇살 광고는 당대 최고의 스타(김국진, 강호동 콤비에 이어 고소영, 이병헌, 송혜교)들이 출연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2001년에는 송혜교를 모델로 발탁하며 전 국민이 기억하는 광고가 탄생했다. 당시 신인 이던 송혜교는 풋풋하고 청순한 외모로 큰 인기를 얻었고, 아침햇살이 부드럽게 속을 달래주는 음료,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료로 자리잡으며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더불어 '아침 햇살'이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쾌한 멜로디의 CM 송이 전국민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아침햇살은 기존 음료 외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비건 음료부터 아이스크림, 젤리 등 새로운 영역으로 출시되며 젊은 고객층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웅진식품은 지난해 5월 식물성 쌀음료인 '아침햇살 미유'를 출시하며 비건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아침햇살 미유'는 국산 쌀에 '가바(GABA)'를 더한 100% 식물성 쌀음료로, 쌀에 영양이 풍부한 발아현미까지 첨가해 쌀 본연의 영양을 가득 담았다.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원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꼼꼼하게 따져 비건 인증을 받

100% 국산 쌀 담은 '곡물 음료' 출시 1년만에 1000억 매출 달성

아이스크림 등 새로운 영역 확장 고소한 맛 유지한 비건음료 출시

대만·베트남에 아이스크림 수출 아침햇살 떡볶이 레시피 화제 되기도



웅진식품이 SNS에서 진행한 '아침햇살 떡볶이 챌린지'



아침햇살 아이스크림과 아침햇살 흑임자콘. /웅진식품

은 제품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한 팩에 가바 미강 추출물이 411mg 함유되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아침햇살 미유는 기존 아침햇살의 고소함과 깔끔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비건 음료로 사랑받고 있다.

보다 앞서 2020년에는 아침햇살을 활용해 새로운 카테고리인 아이스크림 시장에도 진출했다. 추억의 음료가 새로운 형태인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출시 당시 아침햇살 음료의 구수한 맛과 쫄쫄한 찹쌀떡이 주는 독특한 식감으로 SNS상에서 바이럴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아침햇살 아이스크림은 출시 이후 누적 300만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아이스크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아이스크림 인기로 힘입어 K-드라마 등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만과 베트남에도 아침햇살 아이스크림을 수출하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에 아침햇살 아이스크림 판매를 진행한 이후 작년까지 약 100만개 가량 수출됐다.

이후 할매 입맛 트렌드를 공략하며 선보인 아침햇살 흑임자콘은 쌀의 고소함에 흑임자 개 토

핑이 더해진 이색적인 맛으로, 아침햇살 음료에 생소한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그밖에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아침햇살 떡볶이' 레시피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초로 유튜브 '랜덤토랑' 채널에 아침햇살로 만든 떡볶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각종 SNS에 아침햇살을 활용한 떡볶이 인증샷이 널리 퍼졌다. 소비자들은 아침햇살에 고추장을 풀어 넣고, 떡과 어묵을 넣기만 하면 완성되는 초간단 레시피에 열광했고, 별다른 재료 없이도 학교 앞 분식집이나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의 맛이 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랜덤토랑' 채널의 아침햇살 떡볶이 영상은 조회수 437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웅진식품 아침햇살 담당자는 "아침햇살이 최근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어 친숙한 브랜드로 여겨지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침햇살의 고소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굿바이 두산' 유희관 눈물 "참 행복한 선수였다" /사진 뉴시스
▲ 3년 만에 열리는 프로배구 올스타전, 1분 만에 예매 완료

▲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3월부터 세차례 개최
▲ 캐디·카드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세제 혜택 강화



▲ 미국 NBC, 베이징에 올림픽 중계팀 파견 안 하기로
▲ 대한체육회, 베이징올림픽 비후원사 불법 마케팅 집중단속 /사진 뉴시스